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제2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 전 주 반주자
-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 예배로의 부름 담임 목사
-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 함께
-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거칠고 폭력적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미움을 분노로 키워내 결국 위해를 가하는 우리들입니다. 나의 아픔에만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타자의 고통까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되돌릴 수 없는 길은 아예 생각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의 장벽은 세월이 갈수록 견고해져 가는듯합니다. 주님,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6·15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게 하시어, 한반도가 분단과 갈등의 상징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 위로의 말씀 사 60:20 인도자
- ▲ 교 독 문 71. 이사야 55장 다 함께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 2부대표기도 장원호 장로
- 2부응답송 찬양대
- 2부찬양 86.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 함께
- ▲ 성경봉독 눅 17:7-10 I. 인도자
II. 박석희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독자
다 함께
- 2부찬양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양대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웁니다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불로 불로 불로 불로 불로 불로 불로
 성령의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말 씬 두려움과 욕망을 넘어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 찬 양	유성도 교우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야할 길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감당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여러 감정에 휩싸여 가야할 길을 가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고 묵묵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카파도키아의 창문들

...

거대한 화산지형인 카파도키아에는 다양한 모습의 계곡이 펼쳐져 있고, 그 사이로 버섯 모양의 응회암들이 수만 개 이상 솟아 있다. ‘요정의 굴뚝’이라고 불릴 만큼 멀리서 보면 작고 귀여운 스머프 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기나긴 수난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 그 돌기둥들 속에 굴을 파고 살았고, 7세기에는 이슬람 세력의 침입에 쫓겨온 기독교인들 또한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터키인들은 이 땅의 이름을 ‘괴레메(보아서는 안 되는 것)’라고 불렀던 모양이다.

지하 석굴은 개인이 기거했던 방 한 칸 크기에서부터 제법 큰 교회나 수도원에 이르기까지 모양과 크기가 다양했다. 단층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몇 층이 연결된 구조도 있고, 지하 8층까지 파내려가며 만든 지하도시는 안내자 없이는 길을 잃을 정도로 거대한 미로에 가까웠다. 이처럼 동굴 거주지가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사암이나 응회암의 부드러운 석질 덕분이다. 그러나 만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외딴 계곡까지 숨어들어야 했던 아나톨리아인들의 고통이 없었다면 이 거대한 석굴도시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특히 괴레메 야외박물관에는 30여 개의 석굴교회가 모여 있다. 그곳엔 11세기 무렵의 프레스코화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선명하게 남아 있다. 교회의 천장과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벽화의 특징에 따라 각기 재미있는 이름들이 붙여져 있다. 카파도키아의 수호성자 성 요한이 말을 타고 뱀을 무찌르는 모습이 그려진 ‘뱀의 교회’, 바닥에 예수의 발 모양이 새겨진 ‘새들의 교회’, 가브리엘 천사의 손에 사과가 들려져 있어서 붙여진 ‘사과의 교회’... 벽화에 그려진 형상이나 염료를 통해 시대를 추정할 수 있고, 성상파괴운동 이전과 이후를 구별할 수도 있으니, 석굴교회 전체가 야외에 마련된 종교 박물관인 셈이다.

벽화 말고도 바위를 깎아서 만든 저장고와 가마, 포도주통, 식탁과 의자 등을 통해 당시 수도사들의 생활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러나 석굴이든 교회든 밖에서 보면 바위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군데군데 뚫려 있을 뿐 내부를 전혀 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카파도키아의 자연 지형은 은신처로는 제격이다. 바위에 난 큰 구멍은 수도사들이 기거하는 방이나 수도원의 창문이고, 작은 구멍은 비둘기 집이다. 전화나 우편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시절, 비둘기의 발목에 묶어 날려보냈을 그들의 편지는 오늘날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통해 주고받는 사연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비둘기는 통신용으로 기르기도 했지만, 구멍 속에 비둘기의 배설물을 모아서 포도를 재배할 때 거름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렇게 인간과 새와 식물이 서로를 키워내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었다는 것도 카파도키아의 아름다움이다. 독특한 지형 위에 꼭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돌을 파내고 살았던 사람들, 그 시절에 인간은 자연 위에 군림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에 깃들여 사는 겸손한 존재였을 것이다.

카파도키아의 웅장한 자연보다도 나를 전율하게 한 것은 어두운 석굴 속에 깃들여 살았을 사람들의 흔적이다. 돌기둥 위에 부정형으로 뚫려 있는 크고 작은 구멍들, 그것이 세상을 향해 난 창문이라니! 그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을 천 년 전의 별들은 얼마나 찬란하게 빛났을 것인가. 별빛과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드는 석굴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얼마나 고독하고 거룩했을 것인가. 카파도키아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기억조차 할 수 없지만, 신앙의 선조들이 일구어놓은 어떤 성지聖地가 내 몸 어딘가에도 자리잡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 성스러운 노랫소리를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나에게 어렴풋한 멜로디를 다시 들려준 카파도키아. 태고의 침묵에 젖은 바위의 눈동자들, 그 작은 창문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나는 현실로 돌아오는 버스에 다시 몸을 실었다.

- 나희덕,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네」(달) 중에서

■ 마음으로 읽는 글 ■

꽃밭에는

- 문정희

꽃밭에는
철마다 약속이 피어난다

너는 봄에 피는 꽃
(봄꽃들은 어김없이 봄에 핀다)

너는 폭양을 이고
여름을 사는 꽃, 또는

시인처럼 가을길에
서 있는 꽃, 너는

그렇지, 건초들과 함께
떠나가는 꽃, 너는
(갈꽃들은 어김없이 돌아간다)

우리처럼 버티는 일 하나도 없는
아, 아름다운 자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한완식

장로 :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곽권희 장원호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 교회소식 ■

1.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남선교회 계삭회가 오늘 오후 4시 용산교회에서 있습니다.
3. **평화세미나** : 다음 주일(25일) 오후에 평화부가 주관하는 평화세미나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주제는 '다양성과 인권의 존중 - 우리 이웃 성소수자 이야기'입니다.
4. **감자수확** : 환경부에서 7월1일 흥천동면교회로 감자 수확하러 갑니다. 노동과 산책, 애찬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즐기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 바랍니다. (황현성 권사 010-9001-0682)
5. **모집** : 1부 예배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목회실에 말씀해 주세요.
6. **주차장 이용** : 교회 오실 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차를 가져오실 때는 공영주차장에 오전11시 이전까지 주차하시고, 주차권은 대당 1매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예배 에티켓** : 예배실 안으로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안에서 음식물을 드시지 마십시오.
8. **신앙실천** : 가뭄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절수를 생활화합시다.

다음 주 설교 본문	겔 36:22-28
-------------------	------------

		설교	기도	성경봉독
다음 주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예배위원	2부	김기석	이한림	김승현

1부 영접위원	이선영	헌금위원	김민화
6월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윤성종	한성건 정재기	이현순 김윤정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유경순		

오늘 식당 봉사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박경원 이선화 송동준 이재선
다음주식당봉사	찬양대
오늘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6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4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김진우